

JPI 정책포럼

인종의 귀환: 인종주의와 현대 국제질서의 재구성

김태형(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 ◆ 인종주의(racism)는 더 이상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시대의 유산으로만 간주하기 어려움. 인종과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사람과 국가, 이주민과 난민을 구분·위계화하고, 국가의 외부 위협 요인의 정도를 구분하는 정치적 논리가 다시금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질서에 기반하여 국제정치는 보편적 인권, 다문화주의, 포용적 국제적 규범의 확산을 통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 될 것이라는 기대되었음.
- ◆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민과 난민의 증가,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지정학적 경쟁과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정체성 정치의 심화는 이러한 기대에 균열을 가져왔음.
- ◆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을 국가공동체의 ‘외부자’ 또는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동과 정착, 권리와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정치가 강화되면서 인종과 국제정치의 관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 국제정치에서도 전쟁과 갈등이 지정학, 경제적 경쟁 뿐만 아니라 인종, 문명적 단층선을 따라 진행되고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따라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각종 분쟁과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 국제정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종주의의 형태와 사례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이 글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점차 증대하는 인종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주목하여 먼저 인종, 인종주의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최근 인종주의가 다시 국제정치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후에 인종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영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함. 인종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국제관계가 한국에 주는 함의와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글을 마무리함.

2.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인종주의의 귀환

- ◆ 국가 간 대결과 국내외 여러 집단 간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종주의(racism), 인종화(racialization), 민족주의(nationalism), 제노포비아(xenophobia)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됨. 하지만 정확한 용어 구분이 필요함

■ 인종주의 관련 용어 정리

◆ 인종(race), 민족성(ethnicity), 국적(nationality):

- ‘민족성(ethnicity)’은 공유된 문화적 유산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을 주로 지칭.
- ‘인종(race)’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근거하여 특정 사회의 규범과 사회·법적 제약 속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범주를 지칭하는 경향.¹⁾ 대부분의 학자는 인종이 물리적 차이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데 동의.²⁾
- ‘국적(nationality)’은 개인의 시민권을 의미.
- 이 세 개념은 광범위하게 혼용되는데, 특히 인종과 민족성이 그러함.³⁾

◆ 인종주의(racialism)는 집단 간 차이를 인종적 범주로 구성하고, 그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인간 집단을 위계화하거나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념과 사회적 관계를 의미.

- 이러한 인간 고유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더 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더 옅은 피부색 사람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
- 고전적 인종주의가 피부색, 혈통, 생물학적 특성 등을 근거로 인종 간 우열을 주장했다면, 현대의 인종주의는 문화, 종교, 생활양식, 문명, 국가정체성 등의 차이를 본질화하여 특정 집단을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남.⁴⁾
- ◆ 인종화(racialization)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적 차이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인종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process)을 말함.⁵⁾
 - 즉, 처음부터 고정된 ‘인종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담론과 제도, 사회적 관행을 통해 특정 집단이 인종적으로 구별되고 분류되는 것임.

1) Jennifer Richeson, Julian Rucker, and Xanni Brown. “Race and racism.” In D. T. Gilbert, S. T. Fiske, E. J. Finkel, & W. B. Mendes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6th ed.). Situational Press. at

<https://openpublishing.princeton.edu/read/race-and-racism/section/2fb3629b-719a-47a0-976e-9f62ae8b2f70>

2) Richard Maas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8, No. 2 (Fall 2023), p. 96; David Steinberg and Daniel McDowell, “Race, Representation, and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8 (Summer 2024), p. 577.

3)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초기에 만들어졌음. 고대와 중세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인종이 아닌 지리적 기준에 따라 인식. 인종을 강조하는 관념은 제국주의와 그에 수반된 제도인 노예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 특히 종교적 영향력이 중요했는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을 노예화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교황이 이를 승인하면서 점차 유럽인들에게 배타적, 위계적 인종 관념 정착. Randolph Meade Walker, “Racism: history of the concept,”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social-sciences-and-humanities/racism-history-concept#full-article>

4) Richeson, Rucker, and Brown. “Race and racis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acism>; Kevin Bustamante, “Waltz with Me: Structural Realism and Structural Racism,” *Security Studies*, Vol. 33, No. 5 (2024), p. 945.

5) Maas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96.

- 예컨대 이민자, 난민, 무슬림, 아프리카계 집단 등이 단순한 법적·사회적 범주를 넘어 ‘특정한 본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되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의 문제와 연결될 때 이들 집단은 정치적으로 인종화됨.
- ◆ 따라서, 인종주의가 특정한 위계적 사고와 질서를 가리킨다면, 인종화는 그러한 인종적 구분과 의미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동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멘도사(Mendoza)는 인종화와 인종형성(racial formation)을 구분하여 인종화는 인종화된 그룹(racialized group,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종)을, 인종 형성은 인종 그룹(racial group, 자연적 형태의 인종)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함.
 - 최근의 정치 지형에서 백인 민족주의에 의해 Latinix, 무슬림, MENA(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주민들은 인종화되어 제노포비아 공격 등 각종 박해와 차별에 노출됨.⁶⁾
- ◆ 민족주의의 핵심은 인종적 우열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nation)을 정치적 공동체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공동체의 자기결정과 정치적 주권을 중시하는 데 있음.
 - 따라서 모든 민족주의가 인종주의적인 것은 아님.
 - 그러나 민족주의가 혈통, 피부색, 출생, 종교 또는 문화적 동질성을 국민공동체의 본질적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인종주의와 결합할 수 있음.
 - 특히 ‘진정한 국민’과 ‘외부자’를 구분하고 특정 집단을 국민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최근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ethno-nationalism(또는 ethnic nationalism, 종족 민족주의)는 인종 간 배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인종화의 중요한 정치적 통로가 될 수 있음.⁷⁾
- ◆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문자 그대로 ‘낯선 사람 또는 외국인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부집단에 대한 적대감, 불신, 거부 또는 배제의 태도를 가리킴.
 - 따라서 제노포비아 역시 인종주의와 동일하지 않지만, 제노포비아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을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열등한 집단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인종주의와 결합할 수 있음.⁸⁾
- ◆ 인종주의, 인종화, 민족주의, 제노포비아 네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현실의 국제정치에서는 서로 결합하는 경우가 많음.

6) José Jorge Mendoza, ““GO BACK TO WHERE YOU CAME FROM!”: Racism, Xenophobia, and White Nationalis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60, No. 4, October 2023, p. 403.

7) Cynthia Vejar, “Ethnic Nationalism,”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ethnic-and-cultural-studies/ethnic-nationalism> 인종처럼 민족과 민족주의도 유럽 근대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길지 않음. 앤더슨은 민족(nation)을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프린트 혁명을 거치며 만들어진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라고 함.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8) Lisa Fritscher, “Xenophobia: The Fear of Strangers: Or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immigrants, and others,” May 20, 2026 <https://www.verywellmind.com/xenophobia-fear-of-strangers-2671881>

- 민족주의가 (협의의 의미로 정의된) ‘국민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제노포비아가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적대감을 제공하며, 인종화가 특정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구성하고, 인종주의가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논리를 제공하게 됨.

■ 인종과 국제관계학(Race and IR)

- ◆ 최근 IR에서 인종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종주의가 IR 필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의 관심 증대에 대해 만시지탄임을 토로함.⁹⁾
- ◆ 인종주의 자체가 위계화된 권력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16세기 이후의 국제관계는 인종주의와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 대서양 노예무역, 제국주의, 양차 대전, 식민지 해방 전쟁, 냉전 대결 등 국제관계 주요 사건, 변화 거의 모두 인종주의와 연관.
 - 1922년에 출범한 Foreign Affairs는 1910년에 Journal of Race Development로 시작. 이후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로 잠시 이름을 바꿨다가 Foreign Affairs가 됨.
 - W. E. B. 듀보이스(W. E. B. Du Bois)는 20세기 초부터 인종과 국제 정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현대 국제 질서의 핵심 동력이자 불평등의 뿌리가 바로 ‘인종 장벽(color line)’과 제국주의적 착취에 있다고 주장.¹⁰⁾
 - 1차 대전 후 미국 윌슨 대통령에 의해 형성되어 현재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ILO) 자체가 자유주의의 외피를 쓰고 국제관계에서 인종적 불평등을 유지해 왔다는 비판도 존재.¹¹⁾
 - 1940년대까지는 국제정치를 인종 간의 대결,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IR 필드에서 인종 담론 연구는 거의 자취를 감춤.
- ◆ 인종주의, 인종화가 IR 필드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유: 왜 IR에서 인종과 인종차별의 역할을 간과하고 부인하는 학계의 관행인 ‘인지하지 않으려는 규범/관행(Norm against noticing),’ ‘의도적인 망각(willful amnesia)’이 지배했는가?¹²⁾
 - 2차대전 후 홀로코스트의 폭로, 탈식민지화 투쟁, 냉전기 압박 등의 영향으로 백인 우월주의의 규범적 기반이 무너지며, 공적 담론에서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표현 대신 비인종적(nonracial) 또는 포스트 인종적(post-racial)인 용어로 담론 재편. 학계에서도 인종적 고려 사항 주류 연구에서 배제.¹³⁾

9) Alexander Anievas, Nivi Machanda, and Robbie Shilliam, eds., *Race and Ra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ronting the Global Color Line* (Routledge, 2015).

10) Zachariah Mampilly, “The Du Bois Doctrine: Race and the American Century,” *Foreign Affairs*, Vol. 101, No. 5 (Sep/Oct 2022).

11) Zoltán Búzás, “Racism and Antiracism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Spring 2021).

12) Bianca Freeman, D.G. Kim, and David Lake, “R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the “Norm Against Noticing,””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5 (2022), p. 177.

13) Maas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93–94.

- 인종화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권력 정치는 배제되고 합리주의·물질주의 관점의 지배와 권력 개념의 제한. 즉, '무정부 상태'와 '안보 딜레마' 등 개념이 유행했듯이 학자들은 물질적 권력과 국가 이익이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며, 이러한 국가 간 관계는 인종과 같은 '국내적 문제'의 상위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가정.¹⁴⁾
- 인종, 노예제, 식민지적 약탈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학술적 접근은 학계 내부의 전문적 관행에 의해 철저히 통제(policing)되어 이러한 시도들은 방법론적으로 '지나치게 역사적이거나 기술적이다'거나 '이론적 엄밀성(theoretical rigor)이 부족하다'는 식의 비판을 받으며 학계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음.¹⁵⁾
- 국제 안보 학계는 인적 구성이 역사적으로 백인 위주로 매우 편향. '안보'나 '주권' 같은 핵심 개념을 정의할 때 소수 인종의 관점이나 역사적 맥락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
 - ▶ ISA에서 자신을 Black이나 Latinx 라고 대답한 학자는 8%에 불과.¹⁶⁾
- 주류 이론들은 서구 강대국들의 역사적 경험을 일반적인 이론적 전제로 무비판적으로 확장하는 유럽 중심주의적 한계를 보여 왔음. 국제 분쟁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전쟁 상관관계(Correlates of War)' 데이터세트는 초기 설계 시 국가 행위자의 사망자만을 기준으로 전쟁을 규정함으로써 강대국이 식민지인들에게 가한 엄청난 폭력 사태들을 누락시키는 등 데이터 자체에 인종화된 편향이 내재됨.¹⁷⁾
- 크리슈나(Krishna)는 IR이 개념적 추상화(Abstraction)를 통해 역사적 폭력을 거세하고, 지연된 구원(Deferred Redemption)을 통해 현실 불평등을 정당화해왔다고 비판.¹⁸⁾
- ◆ 최근, 특히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한 플로이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미국 전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인종, 인종주의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각과 반성이 일어났고 식민주의, 노예제, 인종 기반 국제질서 구축 등과 연관 있는 상징, 인물(윌슨, 콜럼버스, 미국 남부 기(Confederate Flag), 벨기에 레오폴드 2세 등)의 교체, 폐기 등이 전개되었음.
- ◆ 국제정치학계도 이를 반영하여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ecurity Studies 등 주요 학술 저널에서 인종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 대거 발표됨.¹⁹⁾

14) Freeman, Kim, and Lake, “R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 177.

15) Ibid., p. 102; Sankaran Krishna, “Race, Amnesia,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 26, No. 4 (Oct.–Dec. 2001), p. 407.

16) Maas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116.

17) Maas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121.

18) Krishna, “Race, Amnesia,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 404–408.

19) Búzás, “Racism and Antiracism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ustamante, “Waltz with Me.”; Maas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Kelebogile Zvobgo, “Why Race Matt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estern dominance and white privilege permeate the field. It’s time to change that.” *Foreign Policy*, June 19, 2020; Gurminder Bhambra, et. al., “Why Is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Blind to Racism?: Ignoring the central role of race and colonialism in world affairs preclude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modern state system,” *Foreign Policy*, July 3, 2020; Robbie Shilliam, “When Did

- ◆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종주의 역사 극복 노력의 성과가 최근 무산되는 과정에 있음.
- ◆ 국제사회에서도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는 강력하게 재확산되는 중.

■ 21세기 인종주의 발흥의 원인

- ◆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
 - 미국 주도 일극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종언.
 - 강대국 간 지정학(geopolitics) 경쟁 격화: 특히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미국 등 서구 사회 내 백인들에게 다른 (열등한) 인종에 의한 '지위 위협(status threat)'을 느끼게 하여 이러한 위협은 국내적으로 보수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²⁰⁾
 - 지역 내 갈등, 분쟁 심화.
 - 규칙, 규범, 제도, 법 등 자유주의적 질서 쇠퇴.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정서 확산²¹⁾
 - 경제적 불평등 심화, 실업 증대.
 - 세계화에 의한 국가 주권의 자율성, 독립성 침해 인식 확산.
 - 미국, 서유럽 국가에 이민자 확산에 따른 불안감 고조.
 - 민족주의, 보호주의 증대.
 - 2016년 Brexit,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짐.
- ◆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²²⁾
 - 인종주의의 발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권위주의화와의 연관.

Racism Become Solely a Domestic Issue?" *Foreign Policy*, June 23, 2020; Travis Adkins and Judd Devermont, "The Legacy of American Racism at Home and Abroad," *Foreign Policy*, June 19, 2020; Keisha Blain, "Civil Rights International: The Fight Against Racism Has Always Been Global," *Foreign Affairs*, Vol. 99, No. 5 (September/October 2020); Brenda Gayle Plummer, "Civil Rights Has Always Been a Global Movement: How Allies Abroad Help the Fight Against Racism at Home," *Foreign Affairs*, June 19, 2020.

20) Bustamante, "Waltz and Me," p. 767.

21) David Lake, "The End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Globalization, Deep Contestation, and the Futur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9, No. 1 (2026), pp. 17-21.

22) V-Dem Institute, "Democracy Report 2026: Unraveling the Democratic Era?" (10th edition).

- 최근 20년 간 거의 모든 민주주의 지표 쇠퇴 중.
 - 2005년에 민주화되고 있던 국가는 27개국이었으나 2025년에는 18개국에 불과, 2005년에 권위주의화되고 있던 국가는 12개국 뿐이었으나, 2025년에는 44개국으로 급증.
- 현재 전체 41%에 달하는 34억 인구가 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국가에 거주.
- 2025년 현재 74%에 달하는 60억명이 권위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은 7%, 6억명에 불과.
- 현재 글로벌 민주주의는 1978년 수준에 불과.
- 민주주의 후퇴와 인종주의의 강세는 악순환을 만들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

3. 트럼프 2기: Make American Great Again(MAGA)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White Christian Nationalism)

■ 인종주의의 기원과 기독교

- ◆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초기에 만들어졌음.
 - 고대와 중세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인종이 아닌 지리적 기준에 따라 인식.
 - 인종을 강조하는 관념은 제국주의와 그에 수반된 제도인 노예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 특히 종교적 영향력이 중요했는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을 노예화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교황이 이를 승인. 점차 유럽인들에게 배타적, 위계적 인종 관념 정착. 콜럼버스(Columbus)도 이교도에(아메리카 원주민) 대한 노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²³⁾
- ◆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노아가 자신을 조롱한 아들인 함(Ham)의 아들인(노아의 손자) 가나안(Canaan)에게 내린 저주를 바탕으로 흑인을 영원히 저주받은 인종으로 규정하여 아프리카계 인종의 노예화 정당화.
 - 미국 남부의 노예제와 노예제 법적 폐지 이후의 짐 크로우(Jim Crow) 차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등도 기독교, 성경을 구실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 정당화.²⁴⁾

23) Walker, "Racism."

24) Walker, "Racism."

■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white Christian nationalism)의 핵심 주장

- ◆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미 의사당을 습격한 반란(insurrection) 주동자들은 기독교 민족주의 표식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으로 규정하고, 의회 난입을 '신성한 사명'으로 정당화. 백인 기독교 상징과 극우 이념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큰 충격 줌.²⁵⁾
- ◆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는 미국이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행동한 백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이들은 미국을 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국가로 인식했지만, 동시에 국내외의 '비(非)미국적 영향(un-American influences)'으로 인해 끊임없이 위협받는 국가로 보고 있는 이른바 '심층 서사(deep story)'가 자리하고 있음.²⁶⁾
- ◆ 고르스키(Gorski)와 페리(Perry)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의 건국 문서가 신의 영감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믿고, 연방정부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해야 하며, 연방정부가 기독교적 가치를 옹호해야 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봄.²⁷⁾
 -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백인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문가와 주류 언론 매체를 불신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의 사용을 지지하고, 사회의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음. 반면 흑인 응답자들에게는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²⁸⁾
 -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17세기 후반에 이미 시작된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흐름 가운데 하나임.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욱 강성해지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큼.
- ◆ 버틀러(Butler)는 더 나아가 기독교 복음주의(evangelical) 운동은 항상 백인의 이해관계를 중시했으며 인종주의는 복음주의의 조직과 실천의 구조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주장.
 - 19세기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노예제 폐지를 지지했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 정당화 입장. KKK 등의 인종 폭력도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지원.
 - 1960년대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한창일 때도 공산주의를 반미적, 반기독교적이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민권운동 활동가들을 똑같은 이유로 비난. 1970년대부터 가족, 교육, 낙태 등 이슈에서 '종교적 우파(the religious right)'임을 내세우며 공화당과 연계 강화.²⁹⁾

25) Philip Gorski and Samuel Perry, *The Flag and the Cross: White Christian Nationalism and the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 1.

26) John Blake, "The biggest myth about White Christian nationalism," *CNN*, Jan 26, 2026.

27) Gorski and Perry, *The Flag and the Cross*, pp. 15-19.

28) Ibid., pp. 76-102.

29) Anthea Butler, *White Evangelical Racism: The Politics of Morality i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 2000년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인종주의적 복음주의 강력하게 자극.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보다 공개적으로 인종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정치 행위자들과 연대하도록 함.³⁰⁾

■ 인종주의와 미국 정치

- ◆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내외 정책의 블루프린트이자 “Project 2025”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 강령에서도 다양성, 평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veness)을 반미국적인 사회주의 좌파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며 학교에서 인종이나 젠더에 대한 교육을 금할 것을 요구.³¹⁾
- ◆ 포딩과 슈람(Fording and Schram)에 의하면 인종주의는 최근 미국 선거에서 주류에 정착(mainstreaming)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함.
 - 경제적 세계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인종주의적 적대감의 대상을 ‘반(反)흑인’ 중심에서 라틴계(Latinx) 인구, 특히 이민자, 무슬림, 유대인이라는 세 개의 다른 ‘외집단’(out-groups)으로까지 확대·변화시켰음.
 -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백인 인종주의와 백인 정체성에 기반한 불만이 정치적 주변부에서 벗어나 미국 정치의 주류로 진입하는 것을 촉진함.³²⁾
- ◆ 오바마 당선 직후 등장한 티파티(Tea Party)는 경제, 세금 이슈의 외피를 썼지만 인종주의와 백인 민족주의를 미국 정치의 주류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함.
 - 이후 라디오, SNS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선거운동 참모들은 인종주의적 수사를 정상적인 정치적 담론으로 만드는 한편,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동원하여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점차 공화당이 기존의 주류 정치에서 벗어나 티파티가 표출했던 급진적 정서를 흡수하고, 티파티가 확산시킨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티파티 자체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마련.³³⁾
- ◆ 즉 주변부에 머물렀던 인종주의적·백인 민족주의적 정치 세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선거정치에 적극 참여하며 과거의 극단주의 담론이 선거정치와 주류 정치공간으로 진입(mainstreaming).

Carolina Press, 2022), pp. 40–49, 57–58.

30) Ibid., p. 121.

31) Paul Dans and Steven Groves, eds.,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5*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pp. 4–5.

32) Richard Fording and Sanford Schram, *Hard White: The Mainstreaming of Racism in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2020), pp. 20–46.

33) Ibid., pp. 76–140.

- ◆ 예전에는 후보에서 낙마했을 만한 스캔들이나 인종주의적 언사를 서슴없이 반복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즉 인종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인종주의적 수사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해석 가능.
- ◆ MAGA는 단순한 경제적 민족주의나 반세계화 운동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움
 - MAGA의 사상적 원천은 매우 다양하며,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담론, 헌법에 대한 재해석, 기독교 신우파(Christian New Right)의 복음주의, 반(反)‘워크’(anti-woke) 보수 민족주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³⁴⁾
 - 이처럼 서로 다른 사상과 입장들은 강한 반(反)페미니즘적 남성성,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속하고 반지성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
 - 일부 복음주의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신이 미국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폭력이나 법 위반을 지지하거나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신적 명령이 내려진다고 믿음.³⁵⁾
 - 복음주의 집단의 엄청난 다양성 속에서도, 이른바 ‘7개 산 운동(Seven Mountains Mandate)’이라는 보수 교리는 ‘기독교가 정치와 문화를 광범위하게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 이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사회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를 장악할 정당성을 갖는다’고 여겨짐.³⁶⁾
- ◆ 이렇게 미국 보수 복음주의의 일부인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가 MAGA와 강하게 결합함.
 -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특정한 기독교적·문화적 전통과 연결하여 ‘100% Americanism,’ ‘진정한 미국인(authentic Americans)’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정치적 경계 형성.
 - ▶ 미국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고, 백인 남성 기독교(개신교)인이 미국의 ‘진정한’ 주체라는 인식³⁷⁾
 - 백인 우월주의 및 가부장적 권위와 결합해 인종적·성적 경계 형성: 다문화주의, 이민, 젠더 평등 등의 이슈에 강한 거부감.
- ◆ MAGA의 예수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리스도가 아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눈이 “불꽃 같고”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적과 싸워 승리하는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전사 그리스도(Warrior Christ)’를 칭함.³⁸⁾

34) Laura Field, *Furious Minds: The Making of the MAGA New Ri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6), Ch. 1.

35) Ibid., p. 289; Blake, “The Biggest Myth about White Christian Nationalism.”

36) Field, *Furious Minds*, 291. 7산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7가지 핵심 영역(정부, 가족, 종교,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예술/엔터테인먼트)을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교리로서, 세속적 권위를 해체하고 미국을 기독교화하여 신정국가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37) Gorski and Perry, *The Flag and the Cross*, pp. 3–6.

38) John Blake, “Pope Leo’s target is bigger than Trump. He’s rebuking the ‘MAGA Jesus’,” *CNN*, Apr 20, 2026.

- ◆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란의 “종말론적(apocalyptic)” 적들에 맞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 역시 바로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로서, 군사적 승리를 단순한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도덕적 승리로 강조함.³⁹⁾
- ◆ 5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주도 미 전국 250주년 “Rededicate 250” 기도회가 8시간 동안 여러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 참여하며 대규모로 거행. 이 행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잘못 묘사하고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 제기됨.⁴⁰⁾
- ◆ 물론 모든 복음주의자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자는 아니고 모든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자가 공화당 지지자인 것은 아님.

4.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종주의와 외교정책

■ 이민(immigration)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전환

-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국경 문제가 국내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격상.
 - “Project 2025”에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국경을 튼튼히 보호할 것을 강력히 주문.⁴¹⁾
- ◆ 2025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국경통제와 서반구를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보다 중요한 외부 위협으로 취급. 즉 인구의 이동 자체가 안보화(securitization)되는 현상⁴²⁾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자원, 인력, 권한 증대.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전격 체포, 구금 외에도 미국 시민 사살 등 광범위한 강압 정책 시행.⁴³⁾
 - 2025년 10월 미 대법원이 ICE 작전 수행 중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이 적법하다는 판결 내린 후 시민권자에 대한 표적 단속(Targeting Citizens)으로 라틴계(Latinix), 아프리카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 시민들 중 부당하게 제지·심문을 받거나 구금된 경우 속출.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시민과 합법적 체류자들 가운데서도 공공장소에서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 증가.⁴⁴⁾

39) Ibid.

40) Michelle Boorstein, Laura Meckler and Mariana Alfaro, “Trump-backed prayer festival on National Mall draws thousands: ‘We welcome Jesus!’” *Washington Post*, May 17, 2026.

41) Dans and Groves, eds., *Mandate for Leadership*, pp. 9–12.

4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November 2025, p. 11.

43) 교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색출, 추방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함.

44) Gabriel Sanchez and Edward Vargas, “Racial profiling by ICE will have a marked impact on Latino communities,” October 16, 2025 at

- ICE의 공격적인 활동으로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후 9월 현재까지 8명이 ICE 총격으로 사망. ICE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도 올해 현재까지 24명으로 2025년의 33명(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⁴⁵⁾

■ 유럽의 ‘문명적 소멸’ 경고

- ◆ NSS에서 유럽의 문제를 경제·군사적 문제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민정책이 유럽의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
- ◆ 출산을 하락과 이민을 국가 정체성의 상실과 연결하여 유럽이 “문명 소멸(civilizational erasure)”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정
- ◆ “Western identity”와 “national identities” 회복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non-intervention을 공약했지만 유럽에 한해서는 “애국적인 유럽 정당(patriotic European parties)”을 중심으로 유럽이 현재의 위험한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개입 약속.⁴⁶⁾
- 실제로 뱀스 부통령이 유럽 방문 중 오직 독일의 극우정당인 대안독일(Alternative for Germany) 지도자만 만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유럽 주요국의 정치과정에 적극 개입.
- ◆ NSS가 인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적 정체성’, ‘서구 문명’, ‘국가 정체성’, ‘대량 이민’, ‘출산율’, ‘문명적 소멸’이라는 언어를 통해 인종적·문화적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경계를 분명히 지적함.⁴⁷⁾

■ 미국 국내 안보위협에서 백인 극우 인종주의 그룹은 위험대상에서 삭제

- ◆ 미 법무부는 4월에 2021년 1월 의사당 습격에 앞장섰던 백인 우월단체인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와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에 대한 선동음모(seditious conspiracy) 유죄평결 기각.
-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습격으로 기소된 지지자들을 ‘인질’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000명 이상 사면⁴⁸⁾

<https://www.brookings.edu/articles/racial-profiling-by-ice-will-have-a-marked-impact-on-latino-communities/> ; Mariana Alfaro, “Native Americans are being swept up by ICE in Minneapolis, tribes say,” *Washington Post*, January 16, 2026.

45) Catherine Shoichet, Alex Leeds Matthews, Annette Choi, and Kate Carroll, “Tracking the numbers behind Trump’s immigration offensive,” *CNN*, September 21, 2026.

46) The White House, “NSS,” pp. 25–26.

47) Benjamin Wittes, “The Situation: Why Did the White House Write T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8, 2025,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the-situation—why-did-the-white-house-write-this-national-security-strategy>.

- ◆ 5월 초 백악관이 발표한 대테러 보고서(Counterterrorism Report)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함께 중남미의 ‘마약 테러리스트(narco-terrorist)’를 격파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반미국적이고 급진적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파시스트(antifa)’를 포함하는 세속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그룹’을 무력화해야 함을 강조.⁴⁹⁾
- ◆ 이 보고서에 대해 대테러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점은 최근 미국 내 테러 발생, 사상자 숫자에 가장 책임이 큰 극우 백인우월주의 단체, 네오 나치(Neo-Nazi) 등이 제외되었다는 것. 결국 테러로부터의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 보호에 이 보고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음.⁵⁰⁾
- ◆ 과거에도, 특히 냉전 기간 백인 우월주의 그룹은 각종 폭력, 테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비호를 받은 적이 많았음. 테러리즘 같이 중요한 안보 이슈에서도 인종에 기반한 이중잣대가 주요 안보정책이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음.⁵¹⁾

■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정책

◆ 남아공 흑인 민주정부 모욕

-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백악관 방문 시 예고 없이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제노사이드 당하고 있다는 영상 강제 시청.
 - ▶ 영상 자료의 출처 불분명하고 남아공에서 백인에 대한 집단학살의 증거가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주장.⁵²⁾
 - ▶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남아공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도 유사한 주장 지속.
- 현재 남아공 정부는 토지개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을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명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백인에 대한 극심한 인종적 차별의 사례로 해석⁵³⁾

48) Hannah Rabinowitz, "Justice Department moves to dismiss Proud Boys and Oath Keepers' seditious conspiracy convictions," *CNN*, April 15, 2026.

49) The White House, "US Counterterrorism Strategy," May 2026, pp. 5-6.

50) Colin Clarke, "What Makes Trump's New Counterterrorism Strategy So Alarming," *Foreign Policy*, May 15, 2026; Rishi Iyengar, "What's in Trump's New Counterterrorism Strategy? The White House ignores the threat of far-right groups," *Foreign Policy*, May 7, 2026.

51) Zoltán Búzás and Anna A. Meier, "Racism by Designation: Making Sense of Western States' Nondesignation of White Supremacists as Terrorists," *Security Studies*, Vol. 32, Nos. 4-5 (2023).

52) Gary O'Donoghue, "Ramaphosa keeps cool during Trump's choreographed onslaught," *BBC*, 22 May 2025.

53)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남아공에서 외국인 추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이어지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력, 방화, 살인 등의 피해를 입음. 경제불황, 치안불안이 심화되며 이러한 제노포비아가 남아공 사회에 최근 만연. '다름'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단지 '흑/백' 인종만의

◆ “백인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정책의 역설.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취임 직후 전 세계적인 난민 수용을 대폭 제한.
- 하지만 2025년 2월 행정명령은 남아공에서 “부당한 인종적 차별과 박해”를 받는 아프리카너(Afrikaner)의 미국 정착을 우선하도록 명시. 2025년 8월에는 40,000명의 상한선을 두되 30,000명을 Afrikaner에 배정⁵⁴⁾
 - ▶ 2026년 4월 보도에 의하면 2025년 10월부터 총 4,499명의 난민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Afrikaner였음⁵⁵⁾
- 2026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Afrikaner 난민 상한을 기존 7,500명에서 17,500명으로 증원.⁵⁶⁾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남아공에서의 인종적 폭력 및 차별이었음.
- 미 행정부는 또한 남아공 내에 난민 심사하는 기관 설치.
 - ▶ 난민은 귀국할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권을 포함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임.
 - ▶ Afrikaner는 난민 신청 시 대단히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음.⁵⁷⁾
- 2018년 트럼프 1기 때 상원의원들과 난민정책에 관해 논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왜 미국은 항상 더럽고, 지저분하고, 역겹고, 범죄가 만연한 완전히 엉망인 곳들인 소말리아, 아이티, 다른 아프리카 국가 등 ‘빌어먹을 나라(shithole countries)’에서 온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해 불평. 왜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강조하여 국제적인 비난 받은 바 있음.⁵⁸⁾
- 난민은 박해받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인종적·문화적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Alexandra Sharp, “Anti-Immigrant Marches Held Across South Africa,” *Foreign Policy*, June 30, 2026.

54) Ted Hesson, “Exclusive: Trump administration weighing refugee cap of 40,000 with focus on white South Africans,” *Reuters*, August 15, 2025. Afrikaner는 네덜란드에서 남아공 지역에 정착한 백인계 주민들의 후손인 남아공 내 백인 소수집단.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백인 지배의 핵심 집단 가운데 하나였음.

55) Mayeni Jones, “US has let in 4,499 refugees since October – all but three were South African,” *BBC*, April 10, 2026.

56) Joanna Slater, “Trump offered White South Africans a new life. Thousands took him up on it.” *Washington Post*, May 22, 2026. 이 때도 10월 이후 입국한 난민 6,069명 중 3인 제외하고 모두 Afrikaner였음.

57) Priscilla Alvarez and Jennifer Hansler, “Inside Trump’s scramble to get White South Africans to the US as refugees,” *CNN*, Jul 13, 2026.

58) Daniel Dale, “Almost eight years later, Trump confirms he used the phrase ‘shithole countries,’” *CNN*, Dec 11, 2025.

- ◆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Eswatini, 과거에 스와질랜드라고 불림)나 남수단에 이 국가와 상관없는 미국에서 체포된 다양한 국적 출신의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여 아프리카를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댓가로 “쓰레기장(dumping ground)”로 사용한다는 비난 받음.⁵⁹⁾
- ◆ 3월 말 유엔 총회에서 가나가 제출한 대서양 노예 무역 기간 발생한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를 ‘가장 반인도적 범죄행위(the gravest 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세 국가 중 하나였음.⁶⁰⁾
- ◆ 9월 초 유엔 총회에서 16세기에 제작된 메르카토르(Mercator) 도법 지도가 고위도 지역을 확대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그린 것을 시정하고자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크기를 정확히 반영하는 새 세계지도(Equal Earth 도법) 사용을 권고하는 결의안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
 - 이 결의안 투표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반대표 던짐.⁶¹⁾
- 펜타곤의 기독교 민족주의화와 이란 전쟁
- ◆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가슴에 극우파 그룹과 연결된 십자군 문양의 문신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과 좌파 유령을 비롯한 적을 향해 무자비하게 성전을 수행할 것을 수시로 강조.
- ◆ 병사, 장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종교 지향을 자제하는 관행도 무시.
 - 군대 내 ‘워크(woke, 깨어 있음)’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위장교들 강제 전역시켰는데 흑인, 여성 등이 비대칭적으로 많음.
 -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의 고위장교 그룹을 이성애자 남성, 보수적 기독교인, 백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데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⁶²⁾
- ◆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 전쟁을 비롯한 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기독교 민족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
- ◆ 펜타곤 월례 기도회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신에게 기원하는 기도를 함⁶³⁾

59) Nsmot Gbadamosi, “Trump’s Deportations Spark Anger Across Africa: Africans say that the United States is using the continent as a “dumping ground.” *Foreign Policy*, July 23, 2025.

60) Wedaeli Chibelushi and Thomas Naadi, “UN votes to recognise enslavement of Africans as ‘gravest crime against humanity’,” *BBC*, 25 March 2026.

61) Sarah Davis, “US only country to oppose UN resolution correcting Africa’s size on world maps,” *The Hill*, September 5, 2026. 이 결의안에 따라 유엔은 각국 정부, 학교, 기술 기업(구글 맵, 애플 맵 등)에 면적 비율이 정확한 Equal Earth 도법 사용 장려하기로 함.

62) Rachel Oswald, “Hegseth’s Divine War,” *Foreign Policy*, April 8, 2026.

63) Paul Poast, “Hegseth’s Christian Militarism Is Dangerous for America,” *World Politics Review*, Apr 3, 2026.

- 트럼프 대통령도 신의 이름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정당화. 또한 4월 초에는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전체 문명이 사망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⁶⁴⁾
- 이에 대해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는 “예수는 평화의 왕이며 전쟁을 거부하신 분이 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예수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반박.⁶⁵⁾
-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러한 경향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에도 위배되어 미국 민주주의 원칙 훼손.⁶⁶⁾
- ◆ 전쟁 수행 전, 수행 과정에서 인종화(racialization)는 타자를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는 데 기여하여 타인의 생명에 부여되는 도덕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며, 궁극적으로 ‘자비 없는 전쟁’이 가능해지는 조건을 조성함.⁶⁷⁾

5. 유럽과 중동에서의 인종주의 확산

- ◆ 유럽에서도 이민과 인종·민족적 정체성을 결합한 정치가 중요한 국제정치적 변수로 부상 중.
 - 극우 정당과 정치세력은 이민을 국가 정체성, 치안, 문화적 동질성의 문제와 결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은 각국의 국경정책과 난민정책뿐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⁶⁸⁾
 - 2026년에도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국가에서 벌어진 정치적 논쟁에서 이민과 반이슬람·반이민 담론이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독일 등에서 주류 정당의 몰락과 극우 정당의 부상을 가져옴.⁶⁹⁾
 - 이는 인종주의가 극단적인 정치운동의 주변적 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민·국경정책과 유럽의 정치적 의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⁷⁰⁾

64) “Trump says ‘a whole civilization will die tonight’ if Iran does not make a deal,” *Reuters*, April 7, 2026.

65) Christopher Lamb, “Not in God’s name: How Pope Leo is pushing back on divine justification of war,” *CNN*, April 4, 2026.

66) Stephen Collinson, “The dang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using faith to justify its war,” *CNN*, Apr 17, 2026.

67) Maas,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 109.

68) Christian Edwards, “Britain’s hard right on the march as tens of thousands descend on London,” *CNN*, May 16, 2026.

69) Marcel Fürstenau, “Germany: Chancellor Merz braces for difficult days ahead,” *DW*, September 22, 2026.

70) Quentin Lliger and Mirja Guhiel, “Right-Wing Extremism in the EU,” European Parliament, 2022; Jon Henley, “Nearly a quarter of voters in Europe now back far-right parties,” *The Guardian*, June 24, 2026.

- ◆ 중동 지역의 갈등 역시 인종주의와 국제정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을 둘러싸고 민족적·종교적 정체성과 차별, 분리, 점령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2025년 팔레스타인이 제기한 국가 간 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점령지역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공동체 간 분리, 정착촌 및 전초기지의 확대, 건축허가 제한과 가옥 철거 등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 기여한다고 판단.⁷¹⁾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는 인종주의를 넘어 민족주의·종교·영토·안보·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강대국 간 경쟁,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그러나 특정 집단을 인종적·민족적 범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이동, 거주 및 정치적 지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국제적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것임.
 -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무차별 공세가 제노사이드라는 비판을 받는데,⁷²⁾ 제노사이드는 인종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폭력 형태이기에 이 분쟁에서 인종적 요소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향후 인종주의와 국제관계 전망

■ 미국의 인종주의 국내 정치 가속화

- ◆ 2026년 4월 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소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반면, 순수하게 '정치적·정당적 이익(Partisan advantage)'을 위해 선거구를 짜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거나 허용된다고 판결.
- ◆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구를 짤 때 상대 정당 유권자들을 한 선거구에 몰아넣거나(Packing), 반대로 여러 선거구로 쪼개어(Cracking) 표를 분산시킬 수 있어 유권자의 표 가치 희석되었다는 비판 제기됨.
 - 즉 14조 수정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모든 시민의 투표 가치가 동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1인 1표' 원칙 타격받음.
 -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남부 주 여러 곳에서 소수계 다수 선거구 위축시키는 선거구 재획정 러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됨.⁷³⁾

71) United Nations, "State of Palestine v Israel: UN anti-racism panel calls on States to act," 24 December 2025
https://www.un.org/unispal/document/state-of-palestine-v-israel-un-anti-racism-panel-calls-on-states-to-act/?utm_source=chatgpt.com

72) Olivia Le Poidevin, "Israel targeted Gaza children resulting in genocide, UN inquiry says," *Reuters*, June 23, 2026.

73) Julian Zelizer, "'One Man, One Vote'? Maybe Not in Trump's America: A recent Supreme Court

- ◆ 이는 미국의 보수층이 헌법 등 제도는 기본적으로 '색맹적'(colorblind), 즉 개인의 인종이나 피부색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관.
 - 과거 민권운동 시절에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국 보수 법조계에서 소수파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등의 폐지를 위해 주로 사용.
 - 이는 미국 역사 내 구조적 인종 불평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음.⁷⁴⁾

■ 트럼프 이후

- ◆ 슈테(Schuette)는 트럼프 이후 미국 신우파(New Right)의 새로운 대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과 MAGA 이론가들의 주장에 기반하여 '문명주의(Civilizationism)'를 제시함.
 - 과거 냉전기나 전통적 공화당 보수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전파 및 보편적 가치' 중심의 서구 정체성과 달리, 신우파의 서구는 백인, 기독교, 가부장제, 그리고 지리적 영토에 기반을 둔 배타적 개념임.
 - MAGA의 세계관과 상당한 접점이 있는 이 사상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 확산이나 무리한 해외 개입(never wars)을 거부하고, 세계를 경계 짓는 문명권 별 공간으로 재편하려 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위협이 아닌 오히려 반동성에·반워크적(Anti-woke) 기독교 가치를 공유하는 문명적 동반자나 세력권 인정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고 봄.⁷⁵⁾
- ◆ 최근 미국 정치가 다양성 존중과 포용보다는 배제와 적대의 분위기가 지배하며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며 제2의 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임.⁷⁶⁾
 - 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내 심각한 분열에 의한 대결, 폭력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decision threatens a core democratic principle,” *Foreign Policy*, May 25, 2026; Ronald Brownstein, “This year could produce the largest loss of Black political representation ever. Here’s why,” *CNN*, May 24, 2026.

74) Julian Mark, “‘Colorblind Constitution’ concept underlies key Supreme Court rulings,” *Washington Post*, July 13, 2026.

75) Leonard Schuette, “The New Right’s Grand Strategy After Trump: How Civilizationism Would Upend America’s Role in the World,” *Foreign Affairs*, August 25, 2026.

76) Ravi Agrawal, “Could Civil War Erupt in America?” *Foreign Policy*, August 29, 2024; Claire Finkelstein, “We ran high-level US civil war simulations. Minnesota is exactly how they start,” *The Guardian*, Jan 21, 2026; Benjamin Jensen and Joseph Young, “Is the United States Headed Toward a Civil War?” September 16, 2025 <https://www.csis.org/analysis/united-states-headed-toward-civil-war>

■ 인종주의 강화 속 국제질서 변화 전망

◆ 인권 보편주의의 약화.

- 난민·이민자의 지위, 처우 약화 및 보호 어려움 증가.

◆ 국경과 인구구성의 안보화.

- 국경이 단순한 영토적 경계가 아니라 인구의 인종·민족·종교적 구성을 통제하는 장치로 변화될 가능성.

◆ 문명 구분 기반 국제정치의 부상.

-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대체하여 ‘문명’ 간 단층선을 중심으로 갈등, 경쟁 전개 가능성.

◆ 서구의 재구성.

- 미국과 유럽의 관계 역시 자유주의적 가치의 동맹에서 이질적 문명으로부터 ‘서구 문명을 지키는 정치적 연대’로 재정의될 가능성.

◆ 글로벌 사우스의 반발.

-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역사적 기억 다시 현실화.
- 서구에 대항하는 연대의 가능성.

◆ 국제관계의 다극화 추세 속에서 인종, 문명으로의 단층선 재편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 높음.

7. 결론과 한국에 주는 함의

: 한국은 인종의 국제정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현 국제관계에서 인종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 (다시) 돌아왔음에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

◆ 인종주의, 인종 차별 등의 용어는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관련 우려스러운 행태는 인종주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과거 인종주의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오늘날 인종은 이민, 국경, 인구구성, 종교, 문화, 문명, 국가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국제정치에 다시 등장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NSS와 이민·난민정책, 그리고 MAGA와 결합한 White Christian Nationalism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인종적·문명적 동질성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는 정치가 확산되면서 2차 대전 이후 발전해 온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국제규범 자체가 도전받고 있음.

- 결국 앞으로의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 변화 뿐 아니라 '누가 '우리'이고 '남'인가', '누구를 '우리'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한국의 상황과 한국에 대하여 갖는 인식에 대한 냉철한 인식

- ◆ 경제·기술·문화·군사적 위상 상승하여 하드 파워(hard power) 분야는 세계 6-7위 수준.
 - 그러나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완전히 동등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받는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
- ◆ 영국에 기반을 둔 Global Finance에서 매년 국가 브랜드 인식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 결과라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표(Global Soft Power Index)'를 발표함.
 - 2025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good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항목에서 14계단 상승하여 32위까지 상승했으나 하지만 아직 낮은 수준.
 -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가(helpful to other countries in need)' 항목도 상승하여 25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제기여, 공헌에 대한 인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신뢰도(trustworthiness)(19위), 포용성(inclusivity)(24위), 그리고 관대함(generosity) (37위) 항목도 높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종문제를 포함하여 신뢰성, 포용력, 관대함, 열린 태도 등의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해 보임.⁷⁷⁾

■ 한국도 새로운 인종주의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인지.

- ◆ 코로나 19 시기 겪었던 아시아인 차별과 반아시아 인종주의.
- ◆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경제 위상 상승에 대한 서구의 위기감에 따른 인종주의적 견제 가능.

■ 한국도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자정, 개선 노력 필요

-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배타성.
- ◆ 시리아, 예멘 난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혐오 문제.
- ◆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저항 증대 경향.
- ◆ 한국인이 '서구인/비서구인'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

77) Brand Finance, "The Land of Morning Calm: South Korea's rising Soft Power," 24 September 2025
<https://brandfinance.com/insights/the-land-of-morning-calm-south-koreas-rising-soft-power>

■ 한국 외교의 과제

- ◆ 한국은 강대국 외교에서, 특히 미국, 유럽 국가, 러시아 등을 상대할 때 인종주의적 요소 고려해야 함.
- ◆ 한국의 선택은 특정 문명권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함.
 - 인종·민족·종교에 따른 차별 반대.
 - 난민과 이주 문제에서 일관된 원칙 수립, 견지.
 - 글로벌 사우스와의 상호존중.
 -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
 - 국제기구의 대표성과 공정성 강화 노력.⁷⁸⁾
 -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가교 역할.

78) 스타인버그와 맥도웰에 의하면 흑인 리더의 존재가 해당 국제기구에 대한 흑인 시민들의 신뢰도와 정당성 인식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함. Steinberg and McDowell, "Race, Representation, and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참고문헌

- Adkins, Travis and Judd Devermont. "The Legacy of American Racism at Home and Abroad," *Foreign Policy*, June 19, 2020.
- Agrawal, Ravi. "Could Civil War Erupt in America?" *Foreign Policy*, August 29, 2024.
- Alfaro, Mariana. "Native Americans are being swept up by ICE in Minneapolis, tribes say," *Washington Post*, January 16, 2026.
- Alvarez, Priscilla and Jennifer Hansler. "Inside Trump's scramble to get White South Africans to the US as refugees," *CNN*, Jul 13, 2026.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 Anievas, Alexander, Nivi Machanda, and Robbie Shilliam, eds. *Race and Ra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ronting the Global Color Line* (Routledge, 2015).
- Blain, Keisha. "Civil Rights International: The Fight Against Racism Has Always Been Global," *Foreign Affairs*, Vol. 99, No. 5 (September/October 2020).
- Blake, John. "Pope Leo's target is bigger than Trump. He's rebuking the 'MAGA Jesus'," *CNN*, Apr 20, 2026.
- Blake, John. "The biggest myth about White Christian nationalism," *CNN*, Jan 26, 2026.
- Bhambra, Gurinder, et. al. "Why Is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Blind to Racism?: Ignoring the central role of race and colonialism in world affairs preclude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modern state system," *Foreign Policy*, July 3, 2020.
- Boorstein, Michelle, Laura Meckler and Mariana Alfaro. "Trump-backed prayer festival on National Mall draws thousands: 'We welcome Jesus!'" *Washington Post*, May 17, 2026.
- Brand Finance, "The Land of Morning Calm: South Korea's rising Soft Power," 24 September 2025
<https://brandfinance.com/insights/the-land-of-morning-calm-south-koreas-rising-soft-power>
- Brownstein, Ronald. "This year could produce the largest loss of Black political representation ever. Here's why," *CNN*, May 24, 2026.
- Búzás, Zoltán and Anna A. Meier, "Racism by Designation: Making Sense of Western States' Nondesignation of White Supremacists as Terrorists," *Security Studies*, Vol. 32, Nos. 4-5 (2023)
- Búzás, Zoltán. "Racism and Antiracism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Spring 2021)
- Bustamante, Kevin. "Waltz with Me: Structural Realism and Structural Racism," *Security Studies* Vol. 33, No. 5 ((2024).
- Butler, Anthea. *White Evangelical Racism: The Politics of Morality i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2).
- Chibelushi, Wedaeli and Thomas Naadi. "UN votes to recognise enslavement of Africans as 'gravest crime against humanity'," *BBC*, 25 March 2026.
- Clarke, Colin. "What Makes Trump's New Counterterrorism Strategy So Alarming," *Foreign Policy*, May 15, 2026.
- Collinson, Stephen. "The dang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using faith to justify its war," *CNN*, Apr 17, 2026.
- Dale, Daniel. "Almost eight years later, Trump confirms he used the phrase 'shithole countries'," *CNN*, Dec 11, 2025.
- Davis, Sarah. "US only country to oppose UN resolution correcting Africa's size on world maps," *The Hill*, September 5, 2026.
- Dans, Paul and Steven Groves, eds.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5*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 Edwards, Christian. "Britain's hard right on the march as tens of thousands descend on London," *CNN*, May 16, 2026.
- Field, Laura. *Furious Minds: The Making of the MAGA New Ri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6),

- Finkelstein, Claire. "We ran high-level US civil war simulations. Minnesota is exactly how they start," *The Guardian*, Jan 21, 2026.
- Fording, Richard and Sanford Schram. *Hard White: The Mainstreaming of Racism in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2020).
- Freeman, Bianca, D.G. Kim, and David Lake. "R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the "Norm Against Noticing", "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22) Vol. 25.
- Fritscher, Lisa. "Xenophobia: The Fear of Strangers: Or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immigrants, and others," May 20, 2026 <https://www.verywellmind.com/xenophobia-fear-of-strangers-2671881>
- Fürstenau, Marcel. "Germany: Chancellor Merz braces for difficult days ahead," *DW*, September 22, 2026.
- Gorski, Philip and Samuel Perry. *The Flag and the Cross: White Christian Nationalism and the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 Gbadamosi, Nosmot. "Trump's Deportations Spark Anger Across Africa: Africans say that the United States is using the continent as a "dumping ground." *Foreign Policy*, July 23, 2025.
- Henley, Jon. "Nearly a quarter of voters in Europe now back far-right parties," *The Guardian*, June 24, 2026.
- Hesson, Ted. "Exclusive: Trump administration weighing refugee cap of 40,000 with focus on white South Africans," *Reuters*, August 15, 2025.
- Iyengar, Rishi. "What's in Trump's New Counterterrorism Strategy? The White House ignores the threat of far-right groups," *Foreign Policy*, May 7, 2026.
- Jensen, Benjamin and Joseph Young, "Is the United States Headed Toward a Civil War?" September 16, 2025 <https://www.csis.org/analysis/united-states-headed-toward-civil-war>
- Jones, Mayeni. "US has let in 4,499 refugees since October – all but three were South African," *BBC*, April 10, 2026.
- Krishna, Sankaran. "Race, Amnesia,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ternatives: Global, Local, Political*, Vol. 26, No. 4 (Oct.–Dec. 2001).
- Lake, David. "The End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Globalization, Deep Contestation, and the Futur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9, No. 1 (2026).
- Lamb, Christopher. "Not in God's name: How Pope Leo is pushing back on divine justification of war," *CNN*, April 4, 2026.
- Le Poidevin, Olivia. "Israel targeted Gaza children resulting in genocide, UN inquiry says," *Reuters*, June 23, 2026.
- Liger, Quentin and Mirja Guhiel, "Right-Wing Extremism in the EU," European Parliament, 2022.
- Maass, Richard. "Ra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48, No. 2 (Fall 2023).
- Mampilly, Zachariah. "The Du Bois Doctrine: Race and the American Century," *Foreign Affairs*, Vol. 101, No. 5 (Sep/Oct 2022).
- Mark, Julian. "'Colorblind Constitution' concept underlies key Supreme Court rulings," *Washington Post*, July 13, 2026.
- Mendoza, José Jorge. "'GO BACK TO WHERE YOU CAME FROM!': Racism, Xenophobia, and White Nationalis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60, No. 4, October 2023.
- O'Donoghue, Gary. "Ramaphosa keeps cool during Trump's choreographed onslaught," *BBC*, 22 May 2025.
- Oswald, Rachel. "Hegseth's Divine War," *Foreign Policy*, April 8, 2026.
- Plummer, Brenda Gayle. "Civil Rights Has Always Been a Global Movement: How Allies Abroad Help the Fight Against Racism at Home," *Foreign Affairs*, June 19, 2020.
- Poast, Paul. "Hegseth's Christian Militarism Is Dangerous for America," *World Politics Review*, Apr 3, 2026.
- Rabinowitz, Hannah. "Justice Department moves to dismiss Proud Boys and Oath Keepers' seditious conspiracy convictions," *CNN*, April 15, 2026.
- Richeson, Jennifer, Julian Rucker, and Xanni Brown. "Race and racism." In D. T. Gilbert, S. T. Fiske, E. J. Finkel, &

- W. B. Mendes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6th ed.). Situational Press. at <https://openpublishing.princeton.edu/read/race-and-racism/section/2fb3629b-719a-47a0-976e-9f62ae8b2f70>
- Sanchez, Gabriel and Edward Vargas. "Racial profiling by ICE will have a marked impact on Latino communities," October 16, 2025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racial-profiling-by-ice-will-have-a-marked-impact-on-latino-communities/>
- Sharp, Alexandra. "Anti-Immigrant Marches Held Across South Africa," *Foreign Policy*, June 30, 2026.
- Schuette, Leonard. "The New Right's Grand Strategy After Trump: How Civilizationism Would Upend America's Role in the World," *Foreign Affairs*, August 25, 2026.
- Shilliam, Robbie. "When Did Racism Become Solely a Domestic Issue?" *Foreign Policy*, June 23, 2020.
- Shoichet, Catherine, Alex Leeds Matthews, Annette Choi, and Kate Carroll. "Tracking the numbers behind Trump's immigration offensive," *CNN*, September 21, 2026.
- Slater, Joanna. "Trump offered White South Africans a new life. Thousands took him up on it." *Washington Post*, May 22, 2026.
- Steinberg, David and Daniel McDowell. "Race, Representation, and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8 (Summer 2024).
- "Trump says 'a whole civilization will die tonight' if Iran does not make a deal," *Reuters*, April 7, 2026.
- United Nations, "State of Palestine v Israel: UN anti-racism panel calls on States to act," 24 December 2025 https://www.un.org/unispal/document/state-of-palestine-v-israel-un-anti-racism-panel-calls-on-states-to-act/?utm_source=chatgpt.com
- V-Dem Institute, "Democracy Report 2026: Unraveling the Democratic Era?" (10th edition).
- Vejar, Cynthia . "Ethnic Nationalism,"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ethnic-and-cultural-studies/ethnic-nationalism>
- Walker, Randolph Meade . "Racism: history of the concept,"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social-sciences-and-humanities/racism-history-concept#full-article>
- The White House, "US Counterterrorism Strategy," May 2026.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November 2025.
- Wittes, Benjamin. "The Situation: Why Did the White House Write T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8, 2025,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the-situation-why-did-the-white-house-write-this-national-security-strategy>.
- Zelizer, Julian. "'One Man, One Vote'? Maybe Not in Trump's America: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hreatens a core democratic principle," *Foreign Policy*, May 25, 2026.
- Zvobgo, Kelebogile. "Why Race Matt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estern dominance and white privilege permeate the field. It's time to change that." *Foreign Policy*, June 19, 2020.

저자 소개: 김태형

미국 켄터키 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연구 분야는 핵확산, 핵억지, 남아시아 안보, 동북아 안보, 비강대국 외교정책 등.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2019) 저서와 “Uncertainty in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and the Rise of Complementary Nuclear Deterrence”(2026),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파키스탄 사례로 본 가능성과 한계”(2025), “글로벌 안정/불안정 역설의 심화: 인도-파키스탄 사례에서의 교훈과 과제” (2024), “인도의 ‘강대국’ 지향 외교와 힌두 민족주의 정책은 양립 가능한가?” (2023), “북한은 파키스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역할과 핵지휘통제 비교”(2023), “미·중·러 핵트릴레마(nuclear trilemma)를 통해 본 글로벌 핵질서의 변화 전망”(2023) 등 다수.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25년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회장 역임.

2026년 10월

저작권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